

어린이 환경교육 사례

송진요
(광록회 상임이사)

I. (社) 光綠會의 이념 및 활동 상황

光綠會(회장 李乙浩박사)는 1987년 5월 30일 “生命은 하나 아끼고 가꾸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生命運動을 시작했다.

대기, 수질, 토양오염, 생태계 파괴로부터 우리의 생활 터전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대자연의 질서회복과 인간성 부활을 추구하고 있다.

오염된 현장을 고발하여 警覺心을 일깨우기보다는 汚染되기 이전의 自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게해줌으로써 그들이 건강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한다.

광록회의 활동은 “어린이 環境教育, 同福 수원지 보존 운동, 땅 살리기 운동”등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글의 주제인 어린이 환경교육을 제외한 2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광주 시민의 상수원인 동북수원지를 보호하고 땅을 살리기 위해 和順 二西 지역에 유기농업을 장려했다. 이서 주민을 계도, 품종갱신을 통한 화학비료 및 농약 살포 횟수를 줄이게 했다. 발효돈사를 장려 축산폐수를 없앴다. 그 결과 87년 이래 9백 여명의 주부회원들이 견학했다. 직거래를 통한 땅의 오염과 수원지 보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생산회원들에게는 유기농업교육을 20여회 실시하고, 회지를 통한 땅살리기 특집을 11회 기획했다. 뿐만 아니라 堆肥보내기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지속해온 운동을 체계화 시키고 과학적인 해결을 위해(가칭) 토양보존 환경연구소 개관을 서두르고 있다.

그 밖에 교육 및 홍보활동은 다음과 같다. 인쇄물로서 회지 “光綠”(통권 9호), 환경공해보도자료집 제1집 “生命은 하나 아끼고 가꾸자”, “시청각 교재 목록집” 제 1,2 집(프로그램 3백여편), “광록회 보도자료집” 제1집 등이 있다. 시민강좌를 총 9회 실시하면서 權爾杓박사, 張元박사, 金相鍾박사, 車喆煥박사 등이 강연을 했다.

이런 방향에서 펼쳐진 운동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後代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기 위함에 있다.

II. 어린이 環境教育의 실제

어린이는 바뀔 수 있는 餘裕가 많다. 純粹하다.

便利함과 安逸함에 젖은 마취 상태가 그들에게는 없다. 기성세대는 몇 십년 반복해온 생활습관을 몇번의 교육으로 바꿀수는 없으리라. 공해문제는 대단한 끈기를 요구한다. 기성세대의 鈍感함에 대항,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어린이 교육”이다.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 무엇인가를 찾아 쉼 없이 움직이는 꾸러기 행동과 친진한 눈망울. 바로 이것에 기대를 한다. 점목하는 성급함이 아닌 파종하는 슬기를 배운다.

자연의 아름다움, 봄이 되면 어떻게 새싹이 트고 개울물이 흘러서 어디로 굴러가는지 알도록 해줘야 한다. 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로 알아 성인이 되었을 때를 기대할 수 있다.

광록회는 89년 이래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해왔다. “광록회와 함께 하는 --유치원”을 선정, 크게 어린이, 유치원교사, 학부모교육으로 분류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본회의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어린이 敎育

가. 현장 實習敎育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수질오염, 대기오염이 어떻고를 말하기 이전에 자연을 느끼게 해주고, 인간과의 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과학문명의 인간 중심이 아닌, 자연의 모든 생물체의 生命을 소중히 느끼도록 하는 교육을 선행한다.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본회는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자연, 흙과 접하게 하여 生命體의 의미를 알도록 한다. 낙원, 해성, 정덕, 상지유치원 원아 5백명을 대상으로 수박과 고구마 심기 및 수확하기, 밭잡기 등을 실시해 왔다.

羅州 金泰根이사의 배려로 어린이들이 수박을 심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수박 모종이 아니고 풀이라고 했다. 너희들이 먹는 수박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자 모두들 신기해 한다. 엄마 손을 잡고 밭고랑 사이에서 어린이들은 행여나 수박모가 부러질까봐 매우 조심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표를 꽂았다. 몇 만원짜리 장난감에도 귀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다. 어떻게 보면 아무 값어치도 없는 어린 풀일 뿐이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다.

그후 유치원 선생님이 견학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가 오면 수박이 잘 자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다음부터는 어린이들이 비만 오면 “선생님, 내가 심은 수박 많이 컸어요? 보고 싶어요.”하고 즐라했다고 한다. 8월에 수박을 따러 갔다. 밭두렁에 잘라 놓은 수박은 먹을 생각을 않는다. “와”하는 합성과 함께 스프링클러의 물벼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수박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냉장고를 채우고 있는 수박과는 의미가 달랐다. 그것은 돈주고 사온 것이지, 생명이 없었다. 반면 자신의 수박에는 생명이 있다. 새끼손가락처럼 가녀린 모종이 자신의 머리보다 더 큰 수박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냥 신기해 했다.

산기슭의 가지런한 밭두렁을 보고, “선생님! 흙이 왜 저렇게 이빠요?” 특별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지난 6월 和順 二西 鄭文燮회원 농장에서 고구마 모종을 정성껏 심었다.

기린반, 하마반, 토끼반 등으로 줄을 서서 먼저 밭고랑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정회원은 경운기에 물을 길어 나르고, 어린이들은 이름표로 쓰기 위해 가져온 음료수 깡통에 물을 담아 날랐다. 햇볕은 쨍쨍 짜증이 날만한데도 어느 누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물을 준 촉촉한 흙에 고구마순을 하나씩 심기 시작했다. “씩는 2개 정도를 흙에 묻어야 가을에 고구마가 많이 열리니 한번 해보세요.” 하는 정회원의 설명을 듣고 모두들 시작한다. 어떤 어린이는 순이 너무 흙속에 잠겼다고 선생님께 다시 심어달라고 부탁하는 어린이도 있다.

농부는 가을 농사 흑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고구마 만들기에 재미를 붙인다. 그리고 긴 막대기를 꽂고 이름이 써진 깡통을 씌운다.

무성하게 자란 순과 땅속의 주렁주렁한 고구마를 보고, 그들의 학부형들은 대견해 한다. 아파트 집에서 같으면 손에 흙 묻힌다고 야단칠 엄마들이다. 자연과 접촉으로써 가슴들이 여유롭고, 하찮은 식물에 대해서도 소중함을 느낀다.

해성유치원 李建住원장이 말하는 어린이들의 好奇心이다. “원장 선생님 밤은 왜 가시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고 지난 가을에 문근영(6세) 어린이가 질문했다. 간단하

것 같지만 대답해주지 못했다고 한다.

본회는 해마다 어린이와 학부모 및 회원들과 함께 밤줍기 행사를 벌인다. 자칫하면 가시에 찔리기 쉬어도 떨어진 밤알을 주으려고 하지 않는다. 직접 밭로 문질러 가시를 벌리고 알을 꺼낸다. 개구쟁이들은 손에 잡히는 가지를 흔들어, 친구의 머리통에 밤침을 선사하기도 한다.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골아 떨어지지만, 밤나무 아래에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자연을 즐긴다.

이상에서 언급한 수박과 고구마 심기 및 수확하기, 밤줍기 등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별한 이론이라기 보다는 자연과 접촉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과정의 반복되면서 生命體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그들의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들을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주는 과정일 뿐이다.

나. 意識教育

현장 실습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병행되면서 어린이들의 의식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예를들어 漫畫를 통해 어린이의 편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張承泰회원(무등일보사 시사만화 화백)이 커다란 종이에 소와 사람을 그린다. 소는 짐을 가득 싣고도 힘겨워 하지 않는데, 사람은 꼬마 1명을 업고도 땀을 뻘뻘 흘리는 만화를 그린다. “소는 무엇을 먹습니까?” “풀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죠?” “소시지요, 핫도그요, 라면, 초콜릿이요.” 어린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인스턴트 가공식품이었다. “우리고 힘이 세려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하는 선생님의 질문에 “채소요, 밥이요.”하고 외쳐댄다. 이렇게 해서 낙원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현미밥과 채소를 먹게 하도록 했다.

음식이 있어 편견은 대단하다. 낙원유치원에서처럼 만화를 통해 잘못된 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착안, 어린이들에게 공해 없는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편리한 초코파이와 음료수 대신 현미빵과 호박빵, 야채발효음료 등을 제시했다. 다행히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현미와 야채를 어린이에게 먹여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시작 되었다.

음식 뿐만 아니라 음악에 있어서도, 우리 음악은 어린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첫째는 선생님, 학부모부터 비롯된다. 본회는 光緒 宗물놀이패(도립국악단원 중 8명)의 참여로 어린이에게 유치원 잔치 하는 날 선을 보였다. 상지유치원은 5월이면 들맞이 기념식을 한다. 이 때 국악단과 어린이들이 어울리도록 했다. 자신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보다도 더 흥겨워하면서 유치원 마당을 뛰었다녔다. 쟁과리 소리에 맞춰 서로 손을 잡고 돌면서 모자에서 그리는 소용돌이에 무척 신기해 한다.

어려서부터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 서양음악과 서구적인 사고. 이것들에 둘러쌓여 자란 어린이가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른이 된 후 어머니에 대한 鄉愁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어머니가 끓인 청국장보다는 라면에 더욱 친숙한 이들이다.

바른 意識을 가짐으로써 자연을 소중히 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휘할 것이다.

2. 유치원 教師教育

역시 의식이 부족하다. 남다르게 열성을 갖고 환경문제를 교육하려는 분들도 있다. 지난 해부터 여름 방학 때면 “어린이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을 실시해 왔다. 2년 동안 1백 여명의 교사 및 원장이 참여했다.

작년에는 8월 14-15일, 올해는 7월 24-25일 1박2일간 했다. 7.8시간 짜여진 강의와 재미난 저녁 시간은 참가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91년도에는 李乙浩회장, 張元교수, 李性淇교수, 白荷基교수, 全儀燦교수, 崔炯一교수, 朴柱廣화백 등이 자원봉사를 해주셨다. 올해는 李乙浩회장, 張元교수, 安泰爽교수, 崔錫珍박사, 崔熙成교수 등이 함께 참여하셨다.

“폭력적 대량생산 체계와 살인적 소비문화, 무자비한 자연파괴와 인명 경시 풍조, 강자만 키워내는 교육과 인간 중심의 문화 등에 물들지 않는 어린 세대들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치원 교사교육의 문을 여는 장원교수의 표현이다. “근본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는 인간의 자연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 되었다. 때문에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은 또한 올바르게 못한 교육에서 나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고 최도성교수는 강조했다.

낮에는 꼭 짜인 강의로 진행하고, 저녁 시간은 흥행하고 재미있게 했다. 우선 廣綠풍물놀이패를 초청, 참여 교사와 본회 회원들이 함께 어울린다. 和順 二西 국민학교의 운동장 한가운데 4백년 먹은 느티나무와 함께 손을 잡고 뛰었다. 생산회원들은 자신이 직접 경작한 농산물을 가지고 저녁 시간에 찾아 주었다. 직접 두부를 만들고 술을 빚어 잔치상(?)을 꾸미게 차려낸 셈이 되었다. 모두들 서로 권하고 흥을 돋구느라 시간 가는줄 몰랐다. 도시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풍경이었다.

교육 내용도 훌륭하지만, 自然을 느끼고 정을 나누는 행사가 어우러져 큰 결실을 거뒀다고 본다. 까리따스유치원의 구영희선생님의 말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 했는데 참 좋아요. 방학 때면 연수받는 것이 아득한데 이런 교육은 참 알차고 재미 있어요.” 솔직한 표현이다. 환경교육이라고 1박2일 동안 계속 환경문제만을 거론했으면 이런 대답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주제는 딱딱한 환경문제이니 더욱 그렇다. 환경교육이라면 그 행사 중에서 5% 정도만을 차지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나머지는 참석자가 재미를 느끼고, 스스로 자연의 신선함과 고마움을 맛보도록 한다. 교육 장소를 매번 시골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學父母 教育

어린이의 최대 汚染源은 학부모이다. 학부모들을 교육하는데는 기성세대라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불구하고 어린이 교육에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위에서 밝힌 바대로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신의 지식을 유치원에 맡겼으므로, 선생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착안, 학부모교육을 현장답사교육과 의식교육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가. 現場 踏查 教育

학부모들은 각 유치원별로 생산현장을 답사한다. 매년 5월부터 생산지를 찾자, 그들이 왜 유기농업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二西에서는 동북수원지 물을 바로 당신들이 먹는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땅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오직 “가족 利己主義”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 오염되지 않는 음식은 건강한 땅에서 나온 부산물이라는 인식을 쉽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

반면 호뭇한 광경도 있다. 지난 여름 열무밭을 견학한 해성유치원 학부모 이야기이다. 鄭文燮회원은 작년에 열무 농사를 지으면서, 채종제 1만2천원이면 해결할 것을 인건비 127만원을 들여 농사를 지었다. 수확한 열무는 공판장에서 40원에 경락 되었다. 일반 열무는 2백원인데. 이런 정회원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하여, 1단에 1,500원만 주라고 했다. 학부모들 반응,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2,000원을 내도 작겠소.” 정회원의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고, 실랑이가 불기도 했다.

일체감이 형성되므로, 일요일에도 자원봉사하여 열무를 뽑아주러 나섰다. 해성유치원 학부모, 민호정씨, 고영란씨, 박정씨, 한봉덕씨 등이 그 분이다. 어린이들과 함께 6월 말의 폭염을 받으며 손에 흙을 묻혔다. 일손이 없어 열무를 뽑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선 것이다. 그 뒤 정회원의 부인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죽을 쑤어 병문안을 하기도 했다.

땅의 오염과 동북수원지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힘없는 농부는 올해 큰 힘을 얻었다. 빛을 감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용기가 생긴다고 했다. 공동체적인 운동을 함께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그 밖에 유치원 학부모들이 답사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羅州 金判玉이사의 배농장, 寶成 姜大仁이사의 당근농장, 光州 盧炳男회원의 토마토농장 등이다.

나. 意識教育

유치원 원장의 요청이나 본회의 자원으로 강연회를 각 유치원에서 갖는다. 때에 따라서는 몇개 유치원을 묶어서 실시하기도 한다. 낙원, 정덕, 상지, 해성, 송원유치원 등에 돌아가면서 출강을 한다. 주제는 학부모 특히 주부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것으로 한다.

강 건너 불이라고 인식되는 대기나 수질오염이 아닌 음식공해부터 시작한다. 교과서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데는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은 다르다. 잘못된 음식으로 인해 여러분이 병에 걸리게 되고,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음식이 땅에서 오는 것을 일깨운다. 여기에서 토양을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도출된다. 토양과의 상관관계를 따져 대기, 수질, 생태계 파괴를 언급한다. 물론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반복되어, 해성유치원 학부모의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5월에는 崔用麟교수(연변대 조선어문학과 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白衣民族의 自矜心과 자녀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최교수 특유의 어투와 중국 교포가 느끼는 감정이 어우러져 진지하고 흥미있는 교육이 되었다. 본회는 운동을 펼치는데 있어 완전한 공해 문제만으로 채색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그 중 90% 이상은 문화적이고 재미있는 소재로 엮고 있다.

그 밖에 강사진은 본회 李乙浩회장을 비롯, 茶信契(다산사상을 이어받은 도덕성회복 운동으로 이을호 박사가 조직) 전문 강사, 본회가 초청하는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된다.

학부모교육의 효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각 유치원별로 生命運動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본회 임원, 유아교육전문교수,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다. 회장을 비롯 교육부, 실천운동부, 사업부 등의 각 분과별로 책임자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어린이 및 학부모의 전반적인 교육 및 행사 일정을 유치원측과 협의, 생명운동을 자율적으로 이끄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Ⅲ. 어린이 環境教育의 문제점 및 대안

1. 幼稚園 원장 및 교사의 安逸함

어느 유치원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견학 시간을 어떻게 때울 수가 없어 코카콜라회사를 견학한다. 대형버스를 공짜로 내주므로 그들은 몸만 가면 된다. 쿵쿵 쏟아지는 콜라를 어린이들에게 맘대로 먹게 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온다. 다국적 기업의 매수에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유치원들이 드물지 않다.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생명운동의 전개상 경비가 많이 든다는 곤란한 점이 있다. 현장답사교육을 실시하려면 우선 자동차만 해도 2배를 마련해야 한다. 언제나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본회의 요구에 따르자니 돈이 울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니 의식이 없다는 소리를 듣겠고 원장들의 입장이 진퇴양난이다.

어린이 환경교육을 인솔하는 교사는 피동적일 뿐이다. 현장답사교육을 하면 교사들은 귀찮고 피곤해 죽을 지경이다. 낙원유치원의 한 교사의 말이다. “우리는 원장님이 하리는데로 할 뿐이죠. 재미 없어요. 이렇게 다녀서 무엇 합니까?”

작년부터 실시해온 어린이 환경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에서도 그런 현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광주 시내의 유치원은 2백 여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를 모으는 것은 진땀을 뺀다. 선정유치원 원장의 말이다. “방학이면 다른 연수 받기도 바쁜데, 우리가 꼭 환경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더구나 교사를 보내려면 원장들이 교육비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 또 돈을 들여요?” 그 결과 작년에는 40여명, 올해는 6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을 뿐이다. 2백개의 어렵 잡아도 1천명인데.

아직은 환경의식이 부족하다. 그만큼 본회의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 學父母의 無知와 便利性

“소영이는 머리 감을때 무엇을 사용하지?” “삼푸요” “삼푸가 물고기를 죽게 한다는 것을 알지 왜 그렇지?” “엄마가 괜찮대요.” 해성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어린이가 실천하려고 해도 엄마는 목살하는 경우가 많다. 몇 십년 동안 계속해온 편린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성세대에게는 불편함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장답사교육을 할 때면 家族 利己主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50여명 이상이 견학하는 농장에서 조금이라도 보기 좋은 것을 고르려고 한다.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생산자가 고생한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면 무시한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숫자는 언제나 어린이의 절반 정도이다. 유치원과 본회의 설득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아직은 환경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

“현재 대부분의 엄마들은 영어, 산수,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유아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관계, 정서적인 측면은 무시합니다.” 정덕유치원의 김부자원장의 말이다. 학력 제일주의가 빚어낸 병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귀찮게만 생각한다.

3. 代案

환경교육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를 수용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쉽지 않지만, 이것이 본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환경교육재단이다.

우리 나라에는 장학재단이 많이 있지만, 유아교육재단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 중에서도 환경교육만을 전담하는 재단을 만들고자 구상하고 있다. 뜻있는 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환경교육비의 충분한 지원을 한다. 유치원의 영세성을 수용, 환경교육을 펼치자면 꼭 이뤄야 할 과제이다. 불충분한 환경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간식비를 지원한다. 전문교사를 양성, 각 유치원에 배치한다. 각종 환경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범유치원을 설

립한다. 이곳에서는 전반적인 유아교육에 환경의식을 조화시켜, 어린이 의식에 自然의 의미를 크게 심어 준다.

IV. 結 論

도처에서 외치고 있지만, 시민들의 가슴과 행동까지 연결 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속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既成世대의 안일함이 아닌 어린이들의 純粹性에 기대를 한다. 타성과 게으름에 젖어 있지 않다. 다시 播種하는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지만, 이들의 순수함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키는데 한몫을 한다.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의 의식은 지금의 기성세대와는 다를거라고 확신한다. 성급한 마음으로 접목 시키는 영악함은 헛수고만 낳을 뿐이다. 여기에 본회가 어린이 환경교육을 우선 하는 이유가 있다.